

강릉아산병원 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강릉아산병원은 7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전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268곳을 대상으로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진료 과정·치료 결과 등 총 13개 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뇌졸중은 치료가 수 분만 늦어져도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 여부가 환자의 생존과 후유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응급·중증 질환이다.

강릉아산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99.97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인 85.17점을 크게 웃돌았으며, 상위 20% 의료기관에 포함됐다. 특히 뇌졸중 치료의 핵심인 골든타임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

정읍아산병원

감염관리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7월 14일 감염관리 역량강화 세미나 참가자들.

정읍아산병원은 7월 14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관리 역량강화 세미나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정읍아산병원을 비롯한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공동 주관했다.

1부에서는 최신 감염병 트렌드를 살펴보고 최근 주목받는 감염병과 감염관리 대처법 특강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감염관리에서의 의료관련 감염병의 실제’를 주제로 사례발표가 이어져 급성기 병원부터 요양병원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보성아산병원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 프로그램 업무협약



협약식에 참여한 보성아산병원과 보성군 관계자들.

보성아산병원은 7월 27일 보성군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보성아산병원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신체계측과 혈액검사, 흉부 X-선 촬영 등을 진행했다.

보성군과 보성아산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질병 예방 중심의 아동 건강관리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